

## ★ 중앙교회 구역 모임(20-44) ★

※ 교제와 축복 /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모임을 위한 기도 / 대표 기도자

※ 경배와 찬양 /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300장 내 맘이 낙심되어

### 1. 사표는 부르신 예수님께 직접

번역 선교사인 타우센트(Townsend)는 남미를 전도하는 중에 돈 빌레모라는 한 원주민 젊은이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전도자가 된 돈 빌레모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타우센트 선교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전 이제 사표를 내겠습니다. 여기 전도자 사표를 가지고 왔으니 받아주십시오.” 타우센트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표를 내려고 하지요?” “저는 전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몰랐어요.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와 고함소리 그리고 그들의 비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런 비웃음을 받아가면서 전도해야 하지요? 사실 제가 아쉬운 게 뭐 있어요?” 이 젊은 전도자인 돈 빌레모의 불평을 듣고 있던 타우센트가 말했습니다. “돈 빌레모,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나에게 찾아와서 한 말을 기억합니까? 그 때 당신은 ‘주님께서 저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으니 그 사표를 받을 수 있는 분도 주님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말한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직접 사표를 내십시오.” 청년은 주저하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사표 낸다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안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자 선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주님께서 사표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면, 그 분은 아직도 당신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젊은이는 선교사의 말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곧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는 곧장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1) 위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 2. 말씀나누기

설교 :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1-11)

1.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십시오.
2.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3.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소망하십시오.

**나눔1.**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영적침체를 경험한 분들을 들어보세요.

**나눔2.** 시편 기자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시42:2-4,9-10)

**나눔3.** 영적침체가 찾아올 때 자신에게 무엇이랴 말해야 합니까? (시42:5,11,43:5)

**나눔4.** 우울할 때 의지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시42:5,11,43:5)

### 3. 은혜나누기

- 1)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구역원(성도, 이웃)에게 무엇이랴 말하겠습니까?
- 2) 코로나 종식과 믿음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3) 중보기도
  -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여 각자의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 (2) 담임목사님을 교단 총회장으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결교단 및 한국교계를 더욱 바른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使者)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 (3) 한국교회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한국교회를 보호하셔서 예배와 양육과 기도하는 사역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 (4)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성을 창조의 섭리대로 보존하게 하옵소서.
  - (6) 일본. 권윤일/다게다 기쿠코 선교사 100명이 예배드릴 처소를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소서.

☎중보기도 핫라인 010-2221-3346

### 4. 사역나누기

1) 교회사역안내

● 생명운동캠페인74-11월 “ACTS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영적 회복 캠페인” /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조

- 2) 찬송 / 찬484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 3) 헌금
- 4) 주기도